

《琵琶記》에 표현된 몸의 정치학*

— 신분, 욕망, 육체를 통해 드러난 권력관계 분석 —

김 영 숙**

— <目 次> —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琵琶記》에 표현된 육체 |
| II. 《琵琶記》에 표현된 욕망과 신분 |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元末 高則誠(약 1306~1359)이¹⁾ 쓴 《琵琶記》는 남희의 최고봉에 오른 작품인 동시에 明清 문인 傳奇의 창작 모델이 된 작품이다. 그러한 이유로 《琵琶記》는 “南曲之首”, “傳奇之祖”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명청시기에는 희곡의 경전으로까지 간주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琵琶記》가 이전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黃毅는 이 문제에 대해 “지금 《琵琶記》가 고전명작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것은 쟁론의 여지도 없는 사실”이라고 단언하면서²⁾,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당대에 유행하고 있는 《琵琶記》의 주제사상에 대한 인식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³⁾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논문임(KRF-2007-361-AL0015)

** 이화여자대학교 HK연구교수

1) 高則誠의 이름은 明이고 溫州 瑞安사람이다. 생졸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략 15세기 초의 사람이다. 그의 희곡작품은 《琵琶記》 이외에 《閔子騫單衣記》가 있으나 전해지지 않는다.

2) 黃毅, <《琵琶記》, 經典緣何衰落?>, 《昆明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6. 第1期, 19쪽.

그 이유는 지금 유행하는 《琵琶記》의 주제사상에 대한 이해가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현실적인 의의와 가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주류 의식이 이미 《琵琶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포기했고, 그 때문에 《琵琶記》의 영향력이 점점 작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고⁴⁾ 주장한다.

고전의 형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재구성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유 관념과 그 시대의 현실에서 고전작품을 새롭게 해석하고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고전작품 중 어떤 것은 이전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또 어떤 것은 이전 보다 더 낮게 평가된다. 심지어 기존에 고전으로 평가되었던 작품이 고전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 고전 계열에 속하지 못했던 작품이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아 고전작품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琵琶記》처럼 과거에 고전으로 높게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 당대에도 고전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현실적 가치, 의의를 발굴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유에서 출발하여 《琵琶記》의 사상 의의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몸’의 각도에서 《琵琶記》를 해석하고자 한다. ‘몸’은 최근 수십 년 동안에 유행한 서구 문화이론의 중요한 개념으로, 이 이론이 문화연구에서 유행하게 된 것은 아마도 프랑스 구조주의 푸코의 공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푸코는 몸, 권력, 지식을 연결하여 고찰함으로써 몸을 더 이상 단순한 생물학적 의미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역사, 문화의 실체로 보았다.⁵⁾ 중국에서도 몸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중국역

3) 《琵琶記》전문가인 黃仕忠, 蔡運長 등은 《琵琶記》의 사상적 의의를 “孝道”의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이것은 지금에도 여전히 중요한 현실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琵琶記》사상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유행하는 주제중의 하나이다. 黃毅의 위의 논문, 20쪽.

4) 위의 논문, 20쪽.

5) 미셸 푸코/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서울: 나남출판사, 2004); 조광제, <미셸

사에서 초기의 사상가들도 몸을 단순한 육신의 실체로 보지 않았다. 葛紅兵, 宋耕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초기사상에서 ‘몸’은 최소한 세 층면의 함의를 갖는다. 첫 번째 층면의 “‘몸(身)’은 육체인데, 이것은 무규정성(無規定性)의 육체이다. 두 번째 층면의 몸은 신체이며, 이것은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힘 즉, 감정, 무의식 등과 같은 것의 작용을 받는 몸이다. 세 번째 층면의 몸은 신분인데, 몸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힘 즉, 사회도덕, 문명 의식 등과 같은 것의 작용을 받는 몸이다.”⁶⁾

본 논문은 이상의 몸 이론을 근거로 몸을 신분, 욕망, 육체의 세 층면으로 구성된 유기체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개념을 기초로 신분, 욕망, 육체의 세 층면이 《琵琶記》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그 의의가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琵琶記》가 담고 있는 사상 의의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II. 《琵琶記》에 표현된 욕망과 신분

《琵琶記》는 몸의 욕망과 신분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작품의 줄거리에서 뿐 아니라 주제 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琵琶記》에서 신분은 욕망과 같이 표현되므로 욕망이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욕망이 《琵琶記》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분석하기 위해, 프랑스 구조주의자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⁷⁾

푸코의 권력론>, 《시대와 철학》, 1991; 오생근, <데카르트, 푸코, 들뢰즈의 ‘육체’>, 《성평등 연구》, 2009.9) 참조.

6) 葛紅兵、宋耕, 《身體政治》(上海:上海三聯書店, 2005), 16-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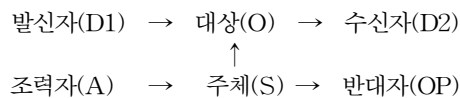
7) Algirdas Julien Greimas(1917~1992) 한국의 기호학, 구조주의 문학 연구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의 서사 이론은 한국문학 작품 분석에도 많이 적용되었다. 본 논문은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을 분석하기 위해, 이 모델이 처음 제시된 그레마스의 《구조 의미론》(1966)(중국어 번역판 A. J. Greimas 《結構語義學》(吳泓縵 譯, 三聯書店, 1999)과 그레마스의 행위소

“행위소”는 서술체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어법 단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행동 발생시에 필연적으로 관련되는 몇 가지 요소를 가리킨다. 그레마스는 “행위소 모델”에서 행위소를 여섯 개의 요소, 즉 주체와 대상, 발송자와 수신자, 조력자와 반대자로 정리하였다. 그중에서 주체와 대상이 가장 중요한 행위소이다. 주체는 모종의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자이고, 대상은 주체가 추구하는 목표 또는 욕망의 대상이다. 발송자는 주체를 위해 목표 또는 대상을 제공하는 인물인데 주체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부여에 관계되며, 수신자는 대상을 받는(손에 넣는) 인물이다. 조력자는 주체가 대상을 획득하도록 돕는 인물이고, 반대자는 주체의 현실적 욕망을 방해하는 인물이다.⁸⁾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체 이외에 다른 행위소들은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추상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⁹⁾

《琵琶記》의¹⁰⁾ 극 전개는 쌍선구조로 되어 있다. 즉, 남자 주인공인

모델을 연극 연구에 적용하여 분석한 안느 위베르스펠트의 “연극에서의 행위소 모델”, 《연극기호학》(신현숙 역, 문학과 지성사 1988), 58-112쪽을 참고하였다.

- 8) 그레마스가 확정해 놓은 행위소 모델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이 도표는 김택환의 논문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 수용의 문제점-발신자/수신자 개념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화연구》, 2001 참조.



행위소들은 주체-대상, 발신자-수신자, 조력자-반대자가 각각 쌍을 이루는데, 위베르스펠트는 세 쌍의 축의 개념을 ‘의사소통’, ‘갈망’, ‘갈등’으로 기능을 요약하였다. 문나리, 《카뮈(Albert CAMUS)의 <Caligula>에서의 행위소 모델》(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5쪽.

- 9) 행위소는 극적 논리를 밝혀주는 단위로서 하나의 추상적 개념이거나 혹은 집단적 개념, 또는 다수의 등장인물의 모임이 될 수 있다. 한 등장인물은 동시적으로 혹은 연속적으로 각각 다른 행위소적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소는 등장인물과 동일시 될 수 없다. 안느 위스펠트의 위의 책, 66쪽.
- 10) 본 논문이 분석한 《琵琶記》는 錢南揚, 《元本琵琶記校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판본임.

蔡伯喈를 중심으로 하는 극 내용과 여자 주인공인 趙五娘을 중심으로 하는 극 내용이 평행선을 이루며 전개된다. 蔡伯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극 내용을 “행위소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해보자.

蔡伯喈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에서, 蔡伯喈가 행동주체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대상 즉, 그의 욕망 대상은 비교적 복잡하다. 《琵琶記》 第2齣과 第4齣은 蔡伯喈의 욕망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의 가장 큰 욕망은 팔순이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결혼한 지 겨우 두 달 된 신부와 함께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원에 은거하며 사는 것이 그의 욕망이다. 사실상 이 세 욕망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즉 고향에서 부모를 봉양하며 아내와 함께 전원생활을 하는 것이 그의 욕망이다. 물론, 蔡伯喈는 처음에 과거 시험을 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 《琵琶記》 第2齣에서 蔡伯喈는 무대에 등장해서 “좋은 때를 만난 태평한 시절에 준마처럼 달리고 싶고 잉어처럼 용이 되고 싶구나”라고¹¹⁾ 노래를 부르고 나서, 곧이어 “멀리 청운을 바라본다”라고¹²⁾ 말하는 것은 이러한 욕망을 대변한다. 그러나 그는 “백발의 부모”를 생각하자마자 곧 과거시험을 보러 집을 떠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린다.

蔡伯喈의 욕망 대상이 확정되었으면, 그 다음은 발송자와 수신자를 보자. 蔡伯喈의 첫 번째 욕망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다. 그에게 이 욕망을 갖게 하게 한 발송자는 그의 부모이고, 수신자도 그의 부모이다. 蔡伯喈의 두 번째 욕망은 아내와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에게 이러한 욕망을 갖게 한 발송자는 그의 아내이고, 수신자는 그 자신과 그의 아내이다. 蔡伯喈의 세 번째 욕망은 전원에 은거하는 것이고, 그에게 이러한 욕망을 갖게 한 발송자는 전원생활 그 자체이고, 수신자는 蔡伯喈 본인이다.

蔡伯喈의 욕망 대상, 발송자, 수신자를 연결해서 보면 그의 욕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발송자로 보면 蔡伯喈의 욕망은 그 자신이 직접 경험한 감정을

11) “【瑞鶴仙】……，風雲太平日，正驍騷欲騁，魚龍將化”

12) “望青雲之萬里”

기초로 해서 생긴 것이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든, 아내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든, 전원생활을 하는 것이든 모두 다 그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그 체험으로부터 생긴 감정에 기초한다.

둘째, 수신자로 보면 蔡伯喈의 욕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은 그의 부모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자신이다. 이것은 蔡伯喈가 추구하는 것은 단지 그 자신을 포함한 가정의 이익을 유지 보호하는 것일 뿐이지 가정을 초월한 원대한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蔡伯喈가 추구하는 목표는 이미 실현된 욕망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목표는 단지 현재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거나 또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보통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다. 이것은 현 상태를 깨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러나 반대자의 간섭으로 蔡伯喈는 그가 욕망하는 목표와 점점 더 멀어진다. 蔡伯喈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에서 반대자의 간섭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므로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蔡伯喈의 반대자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그의 조력자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蔡伯喈의 조력자는 그의 부모와 아내이다. 어머니 蔡母와 아내 趙五娘의 욕망은 그의 욕망과 일치한다. 그들은 모두 蔡伯喈가 과거를 보러가지 않고 집에 남기를 욕망하며 그들이 이러한 욕망을 갖게 된 원인도 蔡伯喈가 그러한 욕망을 갖게 된 원인과 같다. 蔡母는 자신과 남편의 나이가 너무 많아 아들이 곁에서 보살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趙五娘은 이 이유 말고도 금슬 좋은 부부 생활에 대한 꿈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蔡伯喈의 조력자는 모두 여성이라는 것 또한, 신분지위의 한계 때문에 그들의 역량은 반대자처럼 蔡伯喈의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蔡伯喈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반대자이다. 蔡伯喈의 반대자는 세 인물인데, 이 인물들은 바로 蔡父, 牛丞相, 皇帝이다. 이들은 蔡伯喈가 자신을 위해 세운 목표를 반대하고 그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蔡伯喈에게 강요하고

蔡伯喈로 하여금 그들이 세운 목표를 실현하게 한다. 《琵琶記》의 古事가 전개되어 갈수록 蔡伯喈의 행동은 그 자신이 욕망하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욕망하는 목표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사실상 그의 세 반대자들이 욕망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볼 때, 이 세 반대자의 작용은 단순한 주체에 대한 반대자만이 아니라 동시에, 蔡伯喈의 행동 주체 위에 위치하는 ‘초급주체’가¹³⁾ 된다. 초급주체로서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욕망하는 목표가 있고, 또한 행동 주체로 하여금 그들의 욕망에 맞게 행동하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위소 모델”을 이용하여 이 세 초급주체의 욕망과 행동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蔡父는 蔡伯喈를 자기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첫 번째 초급주체이다. 그는 아들인 蔡伯喈의 욕망을 부정하고, 아들에게 과거시험에 참가하여 관리가 되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도록 요구한다. 蔡父의 욕망은 다음의 몇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그는 蔡伯喈 자신을 포함하여 부모인 자신과 蔡母가 세상에 이름이 나기를 바란다. 그의 “입신하여 도를 행하고 후세에 이름을 날려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의 끝”이라는 말은 이러한 욕망을 표명한다.¹⁴⁾ 그 다음, 아들이 관직에 나가 가문을 빛내어 집안의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한다.¹⁵⁾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대에 집안의 명망과 지위가 높아지는 것 뿐 아니라 선대, 후대를 포함하여 蔡氏 집안 전체의 명망과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한다.¹⁶⁾ 이상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蔡父의 욕망은 蔡氏 집안의 명망과 지위를 높이는 것이다.

蔡父에게 이러한 욕망이 생기도록 한 발송자는 蔡氏 집안이고, 수용자도 蔡父 집안이다. 蔡伯喈의 욕망에 비해, 蔡父가 욕망하는 목표는 훨씬

13) ‘초급주체’는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델을 응용하여 본 논문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며, 이것은 蔡伯喈를 중심으로 한 행위소 모델 분석에서 행동주체인 蔡伯喈의 발송자 蔡父, 牛丞相, 皇帝가 동시에, 한 층 더 높은 층면에서는 행동의 주체로서 다른 행동자를 지배하는 행동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4) 『琵琶記』 第4齣, 29쪽: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15) 『琵琶記』 第4齣, 27쪽: “孩兒做官, 也改換門閭”

16) 『琵琶記』 第2齣, 6쪽: “【醉翁子】……; 論做人要光前耀後”

원대하다. 蔡伯喈의 관심은 오로지 부모와 아내를 포함한 자기 가정의 이익만을 포함하는 반면, 蔡父의 관심은 조상과 후손을 포함한 蔡氏 집안의 이익을 포함한다. 또 한편, 蔡伯喈의 욕망은 그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느낀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인 반면, 蔡父의 욕망은 세속에서 유행하는 명성과 지위에 대한 갈망에 기초한다.

蔡父의 반대자는 蔡母, 蔡伯喈, 趙五娘을 포함한다. 蔡父는 신분과 지위가 그의 반대자들보다 높다. 蔡父의 남편 신분은 蔡母의 아내 신분보다 높고, 그의 아버지 신분은 蔡伯喈의 아들 신분보다 높다. 그의 시아버지 신분은 趙五娘의 며느리 신분보다 높다. 이 때문에 반대자 세 사람의 역량은 蔡父가 추구하는 목표를 저지할 수 없다.

蔡伯喈는 蔡父의 반대자인 동시에, 또한 그의 조력자이다. 蔡父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蔡伯喈로 하여금 그의 욕망을 실현하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蔡伯喈는 蔡父가 그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蔡伯喈는 한 몸으로 반대자와 조력자의 두 역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내면의 욕망과 행동이 줄곧 모순된 상태에 있게 된다. 또한 부모 자식이라는 신분의 구속 때문에, 그는 아들로써 아버지의 욕망에 따라 과거를 보고 관리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그 자신의 욕망과 직접 충돌하기 때문에 그는 행동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이 좌절되는 고통을 겪는다.

牛丞相은 蔡伯喈를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두 번째 초급주체이다. 牛丞相의 욕망은 딸을 壯元에게 시집보내는 것이다. 이 욕망은 단순해 보인다. 牛小姐는 혼인할 연령이 되었고, 牛丞相은 딸을 부잣집 자제에게 시집보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딸을 꼭 장원에게 시집보내고 싶어 한다. 蔡伯喈는 장원에 급제하여 우승상이 원하는 사위의 조건에 부합되는데다가, 공교롭게도 황제 또한 牛丞相에게 蔡伯喈를 사위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牛丞相이 사람을 보내 혼인 얘기를 꺼내자, 蔡伯喈는 이미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혼인을 거절한다. 그 후 牛丞相은 황제에게 명을 내리게 하여 억지로 蔡伯喈를 丞相府와 혼인을 맺게 한다. 이때에

牛丞相으로 하여금 자기가 욕망하는 목표를 견지하게 하는 요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가 끝까지 蔡伯喈를 사위로 삼으려고 한 것은 사실상 그 자신의 명망과 지위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마치 승상부의 유모가 牛小姐에게 “아버지에게 귀찮게 하지 마세요. 승상부의 아가씨가 장원에게 시집갈 수 없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전해질까 두려워요”라고¹⁷⁾ 한 것과 같다. 牛丞相은 蔡伯喈로 하여금 자신의 욕망대로 하게 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승상인 자신의 명망과 지위를 무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다. 牛丞相이 반드시 장원을 사위로 맞췄다는 의지의 동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자기 집안의 지위와 명망을 지키려는 요소가 있다. 즉, 장원은 앞으로 고관이 될 것이고, 승상의 지위에 오를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牛丞相은 무남독녀인 딸에게 장원을 사위로 골라주면 후대에 까지도 높은 지위와 명성이 보장되는 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으로 보면, 牛丞相의 욕망은 바로 자기 집안의 명망과 지위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이런 욕망을 생기게 한 발동자는 그의 집안이며, 수용자도 그의 집안이다.

牛丞相의 반대자는 蔡伯喈이다. 그러나 牛丞相은 황제를 그의 조력자로 두었기 때문에 황제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蔡伯喈를 억압하고, 그래서 蔡伯喈는 어쩔 수 없이 牛丞相의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蔡伯喈는 牛丞相의 반대자인 동시에, 조력자이기도 하다. 牛丞相은 자기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위해서이든, 집안의 지위와 명망을 위해서이든, 蔡伯喈를 사위로 맞이해야만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 마치 蔡伯喈가 과거시험에 참가한 것이 蔡父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蔡伯喈가 승상부의 사위가 되는 것도 그가 牛丞相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牛丞相에게서도 蔡伯喈는 반대자와 조력자의 이중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丞相府에서 蔡伯喈는 한편으로 牛小姐의 남편 역할을 담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 趙五娘을 그리

17) 『琵琶記』第14齣, 87쪽: “【桂枝香】……, 非爹胡纏, 怕被人傳, 道你是相府公侯女, 不能够嫁壯元”

위하는 욕망이 좌절되어 상심한다.

황제는 蔡伯喈를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게 하는 세 번째 초급주체이다. 부모가 연로하다는 이유로 蔡伯喈가 황제에게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겠다고 상주하였을 때, 황제가 조서를 내려 “국가의 일이 많고 어려운데 어찌 한가하게 부모에게 보답할 시간이 있겠는가!”라고¹⁸⁾ 하며 국가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蔡伯喈의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는 욕망을 부정한다. 이것으로 볼 때, 황제의 욕망은 신하에게 국가를 위해 보답하게 하는 것이다. 황제에게 이러한 욕망이 생기게 한 발송자는 국가이고, 수신자 또한 국가이다.

황제에 대해서도 蔡伯喈는 반대자와 조력자의 이중 역할을 한다. 황제의 신분과 지위는 至高無上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蔡伯喈는 황제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그는 조정에 남아 관리가 되고 황제가 욕망을 실현하도록 그의 조력자 되고, 황제의 욕망을 실현하도록 도구의 역할도 담당한다. 황제는 억지로 蔡伯喈에게 자기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게 하고, 蔡伯喈로 하여금 고향에 돌아가 부모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전원에서 은거하며 생활하고자 하는 욕망을 전적으로 좌절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蔡伯喈는 비록 몸은 조정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억지로 관리로 남게 한 황제를 계속해서 원망한다.

이상으로 “행위소 모델”을 이용하여 행동의 주체 蔡伯喈와 초급주체 蔡父, 牛丞相, 皇帝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琵琶記》 사상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蔡伯喈와 蔡父, 牛丞相, 皇帝 세 인물의 욕망을 비교해 보자. 蔡伯喈가 추구한 목표는 그다지 원대하지 않다. 그가 관심을 갖은 것은 오로지 가정의 행복이다. 그러나 그의 욕망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에서 출발한 부자, 모자, 부부사이의 애정과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이다. 《琵琶記》 第2齣은 蔡伯喈, 趙五娘이 함께 따듯한 봄날 蔡父, 蔡母에게 長壽를

18) 『琵琶記』 第15齣, 94쪽: “王事多艱, 豈遑報父”

추원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 蔡伯喈가 추구하는 행복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부분은 《琵琶記》 전체에서 가장 분위기가 밝고 명랑하게 묘사되었다. 여기에서 蔡伯喈가 추구하는 소박한 행복은 작가가 긍정하는 바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蔡父, 牛丞相, 皇帝가 추구하는 것은 원대한 목표이다. 예를 들면 가문, 국가, 명망, 지위와 같은 종류의 고상한 名義가 여기에 속한다. 그들은 이 名義를 내세워 蔡伯喈에게 그가 체험한, 순박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희생하도록 요구했다. 蔡父, 牛丞相, 皇帝는 자신들이 세운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蔡伯喈로 하여금 그들의 욕망에 맞게 행동하게 한 결과, 蔡家에 심각한 고난을 초래하였다. 蔡父, 蔡母는 가문에 죽고, 趙五娘, 蔡伯喈는 혹독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蔡父는 蔡母가 죽은 후에 자신의 욕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당초에 깊이 생각도 않고 아들을 장안에 보냈구려, 머느리 고생스럽게 홀로 남겨두고 할멈도 황천길로 떠나보내다니, 다만 내가 일을 그르친 것이 원망스럽구려”라고¹⁹⁾ 한다. 《琵琶記》 마지막 齣을 보면, 황제가 조서를 내려 蔡伯喈 일가에 榮典을 수여하는데, 이것으로 蔡父의 욕망이 마침내 실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저승길로 간 蔡父, 蔡母에게 이러한 명분, 의리와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蔡伯喈가 “어찌 부모를 잃지 않은 것만 하겠는가? 또 어찌 반드시 이름이 드러나고 귀해져야만 하는가? 안타깝게도 두 분이 飢寒으로 돌아가신 것이 자식의 名利로 바뀌어 돌아왔구나” 라고²⁰⁾ 한다. 蔡伯喈 일가의 비참한 조우를 통해 《琵琶記》는 가문, 국가, 명성, 지위 등 이른 바 고상한 名義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였다.

또한 蔡伯喈의 욕망이 蔡父, 牛丞相, 皇帝의 욕망과 충돌했을 때, 왜 蔡

19) 『琵琶記』 第20齣, 122쪽: “【鴈過沙】我當初不尋思, 教孩兒往皇都. 把媳婦閃得苦又孤, 把婆婆送入黃泉路, 只怨是我相耽誤”

20) 『琵琶記』 第42齣, 231쪽: “【一封書】何如免喪親, 又何須名顯貴? 可惜二親飢寒死, 博換得孩兒名利歸”

伯喈는 늘 다른 사람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蔡伯喈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분명히 신분지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문제이다. 전통사회의 예교는 신분지위가 낮은 사람이 신분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른바 “君爲臣綱, 父爲子綱”이 바로 그것이다. 蔡伯喈는 신하로서 군왕의 욕망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고, 자식으로서 부친의 욕망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琵琶記》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받은 억압에 대해 동정하였고 신분지위의 불평등에 대해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琵琶記》는 가문, 국가, 명성, 지위 등 고상한 名義로 다른 사람에게 개인의 감성적인 체험이나 행복을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하였으며, 신분지위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명의, 지위, 신분을 총괄하여 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명분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琵琶記》가 함축하고 있는 사상의 중요한 내용 이라고 볼 수 있다.

III. 《琵琶記》에 표현된 욕체

몸의 한 측면인 욕체는 《琵琶記》에서 충분히 잘 묘사되어 있으며, 특히 趙五娘을 중심으로 한 내용에서 극 전개 뿐 아니라, 주제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蔡伯喈를 중심으로 한 내용에서는 그의 욕망이 좌절되는 상황이 집중적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욕체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 第29齣을 보면, 牛小姐와 蔡伯喈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서 牛小姐가 蔡伯喈에게 관리가 된 후 衣食과 出行에 있어서 모두 최고 좋은 것들을 누리는데 왜 늘 근심스러운 표정이냐고 묻는다. 이에 대해 蔡伯喈는 비록 입는 것을 잘 입지만, “내가 입은 官服에 구속되어 오히려 자유롭지 않고,

내가 신고 있는 것은 官靴니 내 어찌 감히 맘대로 다니겠소?”, 비록 먹는 것을 잘 먹는다 하지만 “입에 밥 몇 술 뜨면 황망히 일 처리해야하는 식사, 손에 犯法이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근심스럽게 들고 있는 술잔”, 그리고 관리가 된 후에는 “오직 백관을 따라 조례하는 시간만 기다리니 봄꽃 가을 달을 놓칠 수밖에 없지 않소? 부질없이 머리만 희어가요”²¹⁾라고 대답한다. 牛小姐는 신분지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보통 사람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말을 한 것이며,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신분지위가 상승하여 육체적으로 좋은 것들을 향유하면 곧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육체적 향유는 蔡伯喈가 욕망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좋은 것들을 누렸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이러한 묘사는 작가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趙五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은 육체에 대한 표현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육체의 표현은 육체의 느낌, 육체의 변화, 육체에 대한 처치(處置) 등 다방면으로 묘사되었다.

먼저, 蔡父, 蔡母와 관련된 육체의 표현에 대해 살펴보자. 蔡伯喈가 과거를 보러 떠난 후 고향에서는 饑荒이 시작되어 蔡父, 蔡母가 饑餓의 고통을 겪는다. 이 육체의 고통은 蔡父로 하여금 아들을 과거 보러 떠나게 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했고, 그는 “당초 내가 틀렸다!”라고²²⁾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蔡母가 기황 중에 죽자, 蔡父는 자기의 고집과 잘못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사무친 후회만 할 뿐이다. 그의 “내가 당초에 깊이 생각도 않고 아들을 장안에 보냈구려, 며느리 고생스럽게 홀로 남겨두고 할멈도 황천길로 떠나보내다니, 다만 내가 일을 그르친 것이 원망스럽구려”라는 말은 그의 회한을 잘 드러낸다. 蔡母가 죽은 후, 蔡父도 병석에 있다가 기황 중에 죽는다. 이러한 蔡母, 蔡父의 육체의 훼손은 명분의 허망함

21) 『琵琶記』 第29齣, 169쪽: “【紅衲襖】我穿着紫羅襪到拘束我不自在, 我穿的皂朝靴怎敢胡去揣?”; “我口裏吃幾口荒張張要辦事的忙茶飯, 手裏拿着個戰欽欽怕犯法的愁酒杯; 只管待漏隨朝可不誤了秋月春花也? 枉干碌碌頭又白”

22) 『琵琶記』 第10齣, 73쪽: “【劉潑帽】……, 嘆當初是我不是”

을 무정하게 드러낸다. 《琵琶記》는 바로 이 육체의 훼손을 통해 蔡父, 牛丞相, 皇帝의 권력자들이 신분지위가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운명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다음은 趙五娘과 관련된 육체의 표현에 대해 살펴보자. 饑荒 중에, 趙五娘은 蔡父, 蔡母와 마찬가지로 饑餓의 고통을 겪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시부모를 모시고 있던 趙五娘은 蔡父와 蔡母가 드실 것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을 모두 팔기 시작한다. “흉년으로 어지러운 세월, 멀리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 성질이 급해서 참지 못하는 시부모, 무력한 쓸모없는 이 한 몸. 옷은 다 저당 잡혀 실오라기 하나 걸칠 것이 없구나”²³⁾는 趙五娘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그녀는 자기 몸을 꾸미고 몸이 편안한 것은 돌아보지 않고, 몸에 걸치고 있는 장식품과 의복을 모두 다 식량으로 바꾸었다.

나라에서 기근을 구휼하기 위해 양식을 방출하였을 때, 趙五娘은 부녀자가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금하는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을 뒤로 하고 시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식량을 받으러 갔다. 양식을 받으려온 그녀에게 관리가 “어찌 양식을 받으러 올 사람이 없어, 아녀자가 낯선 길을 다니느냐?”고²⁴⁾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당시의 사회 관습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이 혼자서 연로한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趙五娘은 사회 관습의 규정을 돌아볼 여력도 없다. 趙五娘은 양식을 받아서 돌아오는 길에서 만난 里正이 양식을 강제로 빼앗으려 할 때도, 시부모에게 드릴 양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에 걸친 마지막 옷마저 벗어주려고 한다. 그녀는 “꼭 (양식을) 가져가야 한다면 차라리 제가 옷을 벗어 드리겠습니다. 나리, 그것과 바꾸어 주실 수 있는지요”, “차라리 저의 몸이 추운 것이 낫습니다. 시부모님께 드려 스러져가는 생명을 구할 수 만 있다면.”²⁵⁾ 이라며 里正에게 애원한다. 그러나 里正은 결국 趙五娘의 양식

23) 『琵琶記』 第20齣, 120卒: “【山坡羊】亂荒荒不豐稔的年歲, 遠迢迢不回來的夫婦。急煎煎不耐煩的二親, 軟怯怯不濟事的孤身己。衣盡典, 寸絲掛體”

24) 『琵琶記』 第16齣, 102卒: “何不使個人來請谷, 婦人生路上走?”

을 강탈해갔고 기아에 시달리는 시부모에게 드릴 마지막 양식마저도 빼앗긴 趙五娘은 우물에 빠져 자살을 하려고 하지만, “남편이 떠날 때 시부모를 잘 모셔 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했던²⁵⁾ 것에 생각이 미치자 돌봐줄 사람이 없는 시부모를 두고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죽겠다는 생각을 접는다. 여기에서 趙五娘이 蔡父와 蔡母의 생존을 위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죽음으로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권리 또한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趙五娘은 “몇 차례 饑荒을 겪으면서”²⁷⁾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식품과 의복을 모두 저당 잡혀 더 이상 내다 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처럼 극한 상황에서 그녀는 시부모를 위해 자기 몸을 팔아 양식을 바꾸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趙五娘은 이렇게 자신이 가 버린 후 아무도 시부모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몇 번이나 내 몸을 팔려고 했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어찌하나?”²⁸⁾ 탄식하며 하는 수 없이 자기 육체를 담보 잡혀 시부모가 연명하시도록 하려는 생각을 포기한다. 趙五娘의 육체적 고난은 남아있는 몇 톨의 양식을 蔡父와 蔡母에게 드리고 자신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넘기기 어려운 쌀겨를 먹는 장면에서 최고조에 다다른다. 기황으로 지친 몸을 지탱하기 위해 쌀겨를 앞에 놓고 그녀는 고통스러워한다.

“허허롭게 바람에 날리듯 알 수 없는 운명을 어찌 기약하리오? 견디기가 힘들구나, 정말 재난과 위기가. 뚝뚝 흘러도 마르지 않는 눈물, 어지러이 얹히어 풀기 어려운 근심의 실마리. 바짝 말라 지탱하기도 어려운 병든 몸, 전전궁궁 견디기 어려운 시절. 겨야, 내 너를 먹지 않으면 내 어찌 허

25) 『琵琶記』 第16齣, 104쪽: “【鎖南枝】……, 若是必須將去, 寧可脫了奴衣裳, 就問鄉官還”……; “寧使奴, 身上寒. 只要與公婆, 救殘喘”

26) 『琵琶記』 第16齣, 104쪽: “【鎖南枝】……, 我丈夫當年分散, 叮嚀祝付爹娘, 教我與他相看管”

27) 『琵琶記』 第19齣, 117쪽: “屢遭饑荒, 衣衫首飾盡皆典賣”

28) 『琵琶記』 第20齣, 120쪽: “【山坡羊】……, 幾番要賣了奴身己, 爭奈沒主公婆教誰看取?”

기를 건디겠니? 내 너를 먹으려니, 어떻게 먹는단 말이냐”²⁹⁾

넘어가지 않는 쌀겨를 억지로 넘기는 고통은 육체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구토가 나 간장이 쓰라리고, 눈물이 흐르네. 목구멍에 아직 끼서 내려가지 않는구나. 겨야! 절구에 찼어 체로 치이고 키로 까불어 졌으니, 온갖 고통을 다 받았구나. 마치 이 몸이 낭패를 만나 千辛萬苦를 다 겪은 것 같구나. 쓰라린 사람이 쓰라린 맛을 보니, 두 쓰라림이 상봉하였구나. 삼키지 못할 줄 알았다네.”³⁰⁾

또 시아버지인 蔡父가 죽자, 趙五娘은 시아버지의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자른다. 전통사회에서 돌아가신 부모의 장례를 잘 치르는 것은 자식 된 자의 책임이다. 趙五娘은 “남편의 효를 이루고”, “머느리 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³¹⁾ 蔡父의 장례를 잘 치루고자 하나, 장례를 치를 돈이 한 푼도 없다. 蔡母가 돌아가셨을 때 이미 張太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그래서 趙五娘은 머리를 자를 결심을 한다. 그러나 유교사회에서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첫째, 부모에게서 받은 신체발부를 훼손하지 않은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³²⁾ 관념에 위배되는 것이고 둘째, 사회적으로 짧은 머리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른다는 것은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루기 위해서 그렇게 밖에 선택할 수 없는 趙五娘은 “머리를 자르니 마음 아프구나, 그저 무정한 남편이 원

29) 『琵琶記』第20齣, 120卒: “【山坡羊】……, 虛飄飄命怎期? 難捱, 實丕丕災共危. 滴溜溜難窮盡的珠淚, 亂紛紛難寬解的愁緒. 骨崖崖難扶持的病體, 戰兢兢難捱過的時和歲. 這糠呵, 我待不吃你, 教奴怎忍飢? 我待吃呵, 怎吃得?”

30) 『琵琶記』第20齣, 卒120: “【孝順歌】嘔得我肝腸痛, 珠淚垂, 喉嚨尙兀自牢哽住. 糠! 遭輶被春杵, 篩你簸揚你, 吃盡控持. 悄似奴家身狼狽, 千辛萬苦皆經歷. 苦人吃着苦味, 兩苦相逢, 可知道欲吞不去”

31) 『琵琶記』第8齣, 卒54: “奴家一來要成丈夫之孝, 二來要盡爲婦之道”

32) 『孝經』: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復孝之始也”

망스러울 뿐”³³⁾이다. 또 자른 머리카락을 팔기 위해 골목마다 헤매고 다니는 趙五娘은 몸이 너무 지쳐 가눌 수가 없어 “목이 잠겨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 죽으면 버려진 시체를 누가 거두어줄까?”³⁴⁾ 며 눈물짓는다.

趙五娘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시신을 묻기 위해 무덤을 파야하지만 돈이 없어 사람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녀는 혼자서 흙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다. “겨우 열 손가락에 의지해서”³⁵⁾ 그녀는 두 손에서 피가 흐르고 몸이 피폐해서 기진할 때까지 육체의 고통을 견디며 시부모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흙을 날랐다. 이러한 육체적 고난은 趙五娘의 외모를 크게 변화시켰다. 張太公이 그녀에게 “蔡伯喈가 아직 집을 떠나지 않았을 때 당신은 젊고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기황의 세월을 만나 외모가 초라해지고 몸은 비천해졌구나”라고³⁶⁾ 한 것은 바로 육체적 고난으로 인해 변한 趙五娘의 모습을 잘 설명한다.

이상으로 趙五娘과 관련된 육체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육체의 표현은 두 가지 측면의 의의가 있다. 첫째는 부정적인 성격의 의의이다. 이것은 비판적 성격이 강하다. 趙五娘이 겪은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은 蔡父, 蔡母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명분에 대한 작가의 의문과 비판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趙五娘의 이러한 메울 수도 보완할 수도 없는 육체의 상처와 고통은 蔡父, 牛丞相, 皇帝와 같은 신분이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표현은 신분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피눈물 섞인 규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는 긍정적 성격의 의의이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육체 고통의 표현을 통해 蔡伯喈의 욕망 중의 부모 봉양

33) 『琵琶記』 第24齣, 143쪽: “【香羅帶】……, 剪髮傷情也, 只怨着結髮的薄幸人”

34) 『琵琶記』 第24齣, 144쪽: “【香柳娘】……, 咽喉氣噎, 无如之奈. 苦! 我如今便死, 暴露我尸骸, 誰人與遮蓋?”

35) 『琵琶記』 第26齣, 154쪽: “【五更傳】我只凭十爪”

36) 『琵琶記』 第28齣, 165쪽: “你當原蔡郎未別去時節, 你青春嬌媚, 你如今遭這飢年荒歲, 貌短身卑”

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구체적이고 형상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趙五娘의 욕망은 蔡伯喈의 욕망과 일치하며, 이들은 모두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그들이 욕망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蔡伯喈가 집을 떠난 후, 그의 이런 욕망은 실현이 불가능해졌고, 그의 행동은 부모봉양의 가치와 의의를 증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趙五娘의 행동은 곧 그녀와 蔡伯喈의 공동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부모 봉양의 가치와 의의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趙五娘이 시부모를 봉양하는 행동은 구체적으로 시부모를 돌보는 것으로 표현된다. 시부모가 살아 계실 때 그녀는 그분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시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들의 시신을 편안하게 묻어 드렸다. 趙五娘이 겪은 육체의 고난은 시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절대로 쉽게 실현되는 욕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특수한 상황에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봉양하는 사람의 절대적 희생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극심한 육체의 고통도 동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趙五娘의 육체적 고난은 명분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것은 또한 명분에 대한 초월을 이끌었다. 명분을 초월한다는 것은 바로 명의, 지위, 신분에서의 차이를 초월하는 것이고, 이러한 차이에 의해 조성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평등 관계를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차이를 초월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분을 초월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琵琶記》가 긍정하는 바의 이상적 가치이다.

趙五娘의 육체적 고난이 명분에 대한 초월을 이끈 것은 구체적으로 그녀의 희생적인 행동이 蔡父, 蔡母를 감동시켜 그들로 하여금 명분의 구속으로 인해 생긴 며느리에 대한 편견을 초월하고, 시부모와 며느리의 명분의 차이 때문에 생긴 간격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표현된다. 趙五娘은 양식을 아끼기 위해 시부모에게만 드리고 자신은 쌀겨로 허기를 채웠고, 또 시부모가 그 사실을 알면 마음을 줄이실까봐 시부모가 보시지 않는 곳에서 몰래 먹었다. 蔡母는 시어머니의 신분에 속박이 되어 趙五娘에게 일중

의 편견이 있었다. 그녀는 혈연관계가 아닌 며느리가 시부모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趙五娘이 시부모에게는 죽을 주면서 자기는 몰래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의심했다. 그리하여 蔡母가 “며느리가 혼자 밥 먹을 때 우리 둘이 가서 내막을 알아보자”고³⁷⁾ 제의하여 蔡父와 함께 가서 趙五娘이 시부모 몰래 쌀겨를 먹는 장면을 목격한다. 蔡母는 진상을 알게 된 후 자신이 며느리를 오해한 것이 부끄럽고 또 죄스러워 과도하게 마음 아파하다가 그 충격으로 죽었다. 蔡父는 趙五娘의 자기희생적 행위에 감동하여 진심으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신분적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했다. 처음에 蔡父가 아버지라는 신분을 내세워 억지로 蔡伯喈로 하여금 과거시험을 보러 가게 했을 때, 그는 趙五娘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었다. 심지어 그는 蔡伯喈에게 부부의 정에 빠져 떠나기 싫어한다고 꾸짖기까지 했다. 지금 그는 그 때 며느리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던 것을 후회하며 “내가 당초에 한 일을 후회할 뿐이다. 너를 헛되게 고생시켰구나”라고³⁸⁾ 말한다. 그는 며느리가 것처럼 마음을 써준 것에 대해 “나는 너의 깊은 마음에 보답하고 싶구나. 다시 태어나면 내가 너의 며느리가 되마”라고 하며 그의 진심을 전한다. 이런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신분지위를 전도하는 시도에 대한 가설은 蔡父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신분적 불평등이 조성한 趙五娘의 고난을 절실하게 인식하였음을 표명하고 蔡父의 신분의 간격과 신분이 조성한 불평등을 뛰어넘고자 하는 갈망을 드러냈다.

蔡父는 또 趙五娘에게 자신이 죽으면 효를 지키지 말고 빨리 개가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 당시의 사회에서 孝義와 貞節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분이다. 그런데 蔡父가 趙五娘에게 효를 지키지 말고, 수절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가 며느리와 함께 고난을 겪는 중에 이러한 명분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간파하였음을 보여준다. 그의 유언은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명분에 대한 멸시와 비판과 초월을 보여주었다. 蔡父의

37) 『琵琶記』 第19齣, 118쪽: “等他自吃飯時節, 我兩人去探一探, 方知端的”

38) 『琵琶記』 第22齣, 135쪽: “【哥兒】只恨我當初, 將你相耽誤”

명분을 뛰어넘고, 불평등을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은 그 자신이 육체적 고난을 직접 체험한 데서 생긴 것이며, 그가 며느리인 趙五娘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짝튼 감정에서 생겼다. 또 그 욕망은 그가 趙五娘이 며느리 신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난을 동정한 것에서 생긴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琵琶記》가 긍정하는 이상적 가치는 명분을 초월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趙五娘이 고난 가운데서 보여준 시부모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며느리의 명분으로 응당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크게 초월하였으며, 그녀의 시부모에 대한 이러한 명분을 초월한 관심과 사랑은 마침내 시아버지로 하여금 명분의 한계와 속박을 깨고 그녀의 행복에 대해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琵琶記》는 명분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는 동시에, 명분을 초월하고자 하는 갈망을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IV. 나오는 말

《琵琶記》는 明清시기에 회곡의 典範으로 추대된 이래 중요한 고전 작품으로 존중되어왔다. 그러나 當代에 와서 《琵琶記》의 고전의 지위가 점차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琵琶記》의 고전의 지위가 쇠퇴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 작품이 표현하고 있는 사상이 완전히 지나간 과거에 속하는 것으로, 지금의 사회에서는 그다지 큰 가치와 의의를 갖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여전히 《琵琶記》의 사상을 “효도”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그것의 현실적인 의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한 지금의 현실에서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琵琶記》가 고전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의의를 현재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의 현재적 의미와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몸’의 이론을 이용하여 《琵琶記》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 하였으며, 이를 통해 《琵琶記》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와 의의가 있음을 밝혔다. 본 논문은 몸을 신분, 욕망, 육체의 유기적 구성체로 규정 하고 《琵琶記》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안에 내포된 권력관계를 고찰하였다. 《琵琶記》는 신분지위에 의해 권력이 부여된 蔡父, 牛丞相, 皇帝가 고상한 명의를 이용하여 蔡伯喈로 하여금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게 하고, 그들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蔡父와 蔡母는 기황 중 고난을 겪다가 죽고 趙五娘은 혼자서 시 부모를 봉양하느라 극도의 육체적 고난을 겪으며, 蔡伯喈는 재상부에서 원하지 않는 우울한 삶을 사는 蔡氏 일가의 비극을 묘사했다. 《琵琶記》는 이러한 묘사를 통해 세상의 고상한 名義에 은폐된 권력을 비판하는 한편, 육체적 체험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에서 배양된 인간의 소박한 감정을 긍정하는 동시에, 신분지위가 낮아 권력에 좌우되는 약자에 대해 동정을 표현하였다.

《琵琶記》에서 표현하고 있는 명분에 대한 의문과 불평등에 대한 비판 사상은 오늘의 현실에도 매우 의의가 있다. 인간 사회에서 고상한 명분과 의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적 행복을 희생시키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들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불평등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존재해왔고, 그것은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데 있어서 문학은 유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琵琶記》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

<參考文獻>

葛紅兵, 宋耕, 《身體政治》(上海: 上海三聯書店), 2005.

- 格雷馬斯/吳泓縉譯, 《結構語義學》(北京: 三聯書店), 1999.
- 錢南揚, 《元本琵琶記校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 미셸 푸코/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서울: 나남출판사), 2004.
- 안느 위베르스펠트/신현숙 역, 《연극 기호학》(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 문나리, 《카뮈(Albert CAMUS)의 <Caligul>에서의 행위소 모델》(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黃毅<《琵琶記》, 經典緣何衰落?>, 《昆明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0. 第1期.
- 李曉莉, <近十年《琵琶記》研究綜述>, 《湖北大學成人教育學院》, 2005. 12.
- 조광제, <미셸 푸코의 권력론>, 《시대와 철학》, 1991.
- 오생근, <데카르트, 푸코, 들뢰즈의 ‘육체’>, 《성평등연구》 9: 2005.

<中文提要>

《琵琶记》在明清时期被人们普遍地视为一部戏曲经典,但在当代,它的经典地位却岌岌可危。造成《琵琶记》衰落的主要原因之一,在于当代人对《琵琶记》的思想意义认识不足。本论文试图用身体的概念,从一个新的角度发掘《琵琶记》的思想价值。本文借鉴中国早期思想家以及福柯等西方理论家关于身体的论说,把身体理解为由身份、欲望和肉体叁个层次构成的一个整体,通过分析身体的叁个层次在《琵琶记》中的表现及其意义,指出《琵琶记》对于以家族、国家等高尚名义去压制和牺牲个人感受和幸福表示了质疑和批评,对于身份地位的不平等表示了抗议和批判,而《琵琶记》表达的这种质疑和批判思想,在当今世界仍然具有鲜活的意义和价值。

주제어: 《琵琶记》, 身体的概念, 新的阐释, 新的阐释, 名分, 质疑和批评, 永恒的价值